

# 모든 일의 결국을 믿는 믿음 (애 4장)

## I. 예레미야 애가, 4장

- A.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538년에 기록되었으며, 3차 바벨론 포로 이송 이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그 배경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스 7:3, 5), 이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BC 586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 B.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으로 불리는 프란시스 웨퍼는 "예루살렘 성의 죽음" (Death in the City)이라는 책으로 현대 사회를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당시의 예루살렘과 비교하며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정리했다.
  - 1.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 종교가 정신적인 영역으로 분류되며, 국가적인 일을 하나님과 결부해서 해석치 않음
  - 2.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동의된 메시지만 말함
  - 3.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신뢰함**: 현대의 Post-Christian 세계(기독교가 더 이상 세계를 이끄는 종교가 아니며, 무신론과 세속주의로 대체됨)와 동일한 모습
- C. 예레미야는 애가 4장에서 (2장과 유사하게) 신명기 28-29장과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 있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 28장	예레미야 애가 4장
17 <u>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u> (신 28:17)	4 <u>젓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u> (애 4:4)
56 <u>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u> 57 <u>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u> (신 28:56-57)	10 <u>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u> (애 4:10)
25 <u>...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u> (신 28:25)	19 <u>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u> (애 4:19)

- D. 11절에서의 예레미야의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묵상하고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 위에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모습은 현대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며, 이는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믿지 못할 사건이었다. 예레미야는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전의 영화롭던 모습과 현재의 처참한 모습을 대조하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11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애 4:11-12)**

- E.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라인을 넘으시는 것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라는, "설마"를 뛰어넘으실 권리가 있으시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이다.
- F.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겪어보지 않은 이상, 이 일에 대해 사실 당연히 놀라게 될 것이다 (눅 21:26).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전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올바른 기대감을 가짐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눅 21:26)**

- 1. [하나님을 알아감]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일들을 하나씩 겪어나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그분의 크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 점차 알아나가게 될 것이다 (겔 28:22).

**22 ...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겔 28:22)**

- 2. [하나님을 사랑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가짐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설 수 있다 (애 3:33).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 11:6)**

- G.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애 3:40).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믿는 백성들이다.

**22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 (애 4:22)**

타조는 자신의 알을 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애 4:3)**

“우리의 콧김”이라는 표현은 애굽이나 가나안에서 왕을 가리킬 때의 표현이며, 시드기야 왕을 가리킨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치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들은 이 왕의 눈을 멀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방인 중에”라는 표현은 “Among the Gentiles”이지만, 그들은 이제 “in the Gentile nations”에 살게 되었다.

**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시드기야 왕)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애 4:20)**